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전능왕 오셔서(찬34/새10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강덕규 집사 2부/이봉운 집사 3부/탁정호 장로 4부/김소라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작곡 최덕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18:21-35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2:35-44

천국의 용서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37) 그 하나가 전부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총만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 *축도 Benediction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마당 청소 Yard Cleaning



정승락 목사 / Rev. Paul S. Jeong

얼마 전 집 앞마당을 청소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마당 근처에 큰 나무들이 많아서 낙엽들이 자주 쌓입니다. 혹이나 바람이 불면 이웃에 있던 낙엽까지 날아와 쌓이기에 때로는 골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올해는 행동이 있는 진실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틈이 나면 청소하기로 했기에 마당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쓸고 담고 또 쓸어도 낙엽은 정말 많습니다. 하다가 힘들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까지 불러서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니, 용돈이란 말에 쓴살같이 달려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빗자루를 가져다 여기 쓸고 저기 쓸고 하다가 심지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등 훈수를 저에게 두지만, 땀을 뻘뻘 흘려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을 보니 그렇게 하기 싫었던 마당 청소가 나름 할 만했습니다. 십 년이 하루 같았다는 말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청소했습니다. 한참을 쓸고 물청소까지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인연아웃에 가서 축하도 같이하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밖에 나와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꽤 많은 낙엽이 다시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가을도 아니고 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심지어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웃집 낙엽들도 날려 온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집 앞의 나무가 넘어져서 우리 집 쪽에 걸쳐 있고 그 나무의 가지들과 나뭇잎들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에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Don't worry, I will help you." 물론 그냥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가 든든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조그만 마당 같습니다. 쓸고 또 쓸어도 내일이면 나도 모르게 낙엽이 수북이 쌓이고, 심지어 이웃집 낙엽도 날아옵니다. 때로는 나무가 쓰러져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쓸어도 또 죄의 낙엽들이 쌓여갑니다. 잠깐만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쌓인 낙엽에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죄의 낙엽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치워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치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심지어 내가 내야 할 값까지 다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요즘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며 황폐한 가운데 건지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쓸어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여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가7:18)

Few days ago, I cleaned my front yard. There are large trees near my front yard, causing fallen leaves to pile up on my small front yard. When it's windy, fallen leaves from my next-door neighbor's yard also blow into my yard, causing more headaches. This year, I made a new year resolution to show love for my wife through actions. I have decided to clean my house whenever I have opportunities. That includes cleaning the front yard. However, no matter how much I rake and remove the leaves, it's just so much. I even solicited my 3rd grade son with allowance, and we cleaned together. The moment he heard the word allowance, he came running. He is hard at work. He sweeps here and there with a small broom. He even tells me what to do and teaches me. Watching my son sweating from hard work of cleaning the yard encourages me to clean my yard which I didn't enjoy doing before. Like the scripture says seven years seemed like only a few days, we cleaned together with no concern for time. We swept and hosed it down with water. It was really clean. With satisfied hearts, I took him to In-N-Out. I gave him his allowance. However, the next morning I went out and what happened? There were piles of fallen leaves, again. It's not even autumn. It's spring. Why are there so many fallen leaves? It was windy last night, and I think even my neighbor's leaves flew into my yard. What's more shocking was that the tree in front of my house fell, leaning towards my house. Broken branches and leaves were piled up high. At that moment, I felt anger rising inside. My son who was standing next to me said, "Don't worry, I will help you". I'm sure he didn't mean for free. But to hear him say don't worry was reassuring.

Our hearts are like small yard. We sweep and sweep again to find the next day it's piled up with fallen leaves, even your neighbor's leaves. There are times when tree falls, and it's too much to bear. No matter how much we sweep, our hearts are piled up with fallen leaves of sin. When we are not careful, we become distraught from these fallen leaves. Jesus has removed all those fallen leaves of sin. Even now, He is cleaning with me. Whenever we are discouraged, He tells us not to worry. However, our Jesus does not expect anything from us.. He even paid the price that I should pay, to give us a clean slate. Even now, He is cleaning our hearts. We have been meditating on the book of Micah. We have been continuously listening to the Word that He will be with the Israelites, who are in the midst of judgment, to the end. He will save them from desolation. Today, I move on, depending on the Lord who sweeps my heart. "Who is a God like you, who pardons sin and forgives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You do not stay angry forever but delight to show mercy."(Micah 7:18)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갑신 목사

천국의 용서

마태복음 18:21-35

1. '용서'라는 말을 듣거나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첫번째 감정 혹은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용서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말에 대하여, 혹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현상이라는 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3. '용서함'과 '용서구함'과 관련하여, 주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4. 조심스럽지만... 오늘 용서에 관한 이슈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할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대하여 새롭게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적용하기



영어교회(BGC)

하나되는 공동체 “Community”

베델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인 Bethel Grace Church(BGC)를 소개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건물을 나누어 사용하지만, 작년 10월 비로소 목회적 독립을 이루게 된 베델 공동체 안의 또 다른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일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예배로 두 번 드려지고 있으며,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로 어린아이를 둔 가족 75명, 청년 40명, 대학생들 50명 등 평균 165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이끄는 찬양팀(Praise band)의 찬양이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돕고 있으며, 많은 젊은 부부들 덕에 아기들 소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에서 주입 새처럼 들리는 베델 영어 교회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인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는 가족 중심 모임 9개, 청년부 4



개 그리고 대학부는 다함께 모여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서로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만남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특별 활동으로는 여성 성경 공부(women's bible study), 일본과 필리핀으로의 여름 선교 여행 그리고 계절마다 가족,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가 따로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베델 고등부(BYM)와 함께 하는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 영어교회가 독립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도 더욱 성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의 주제인 "Community(하나 되는 공동체)"처럼 Bethel Grace Church, 베델 영어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Charles Baek 장로님

세미나

성령의 역동적인 체험



지난 2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훈련원 주관으로 우리 베델교회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베델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소와 여러 인프라를 제공하며 섬긴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사역이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이번 생명사역 컨퍼런스는 총신대학교에서 14년간 교수로 재직하셨던 권성수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이 어떻게 실재화 되는지에 대해 대구동신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왜 교회가 잘되지 않는가? 왜 목회가 어려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원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동적인 경험을 회복하므로 성령의 역동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 속에서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독특한 강조점은 개혁주의 성령론은 본래 성령의 역동적 체험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사실 LA지역 및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함께 성경적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는데,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베델교회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베델교회 교역자들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간파한 채 목회를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열망하는 모임들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 베델교회가 성령의 역동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충경 목사

대심방

열매를 맺는 좋은땅이기를

딩동- 너무나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 반기를 간구하던 저희로서는 2023년 들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가장 크고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목사님의 대심방 소식이었습니다.

어린 딸들의 손을 이끌고 베델의 뜰에 들어선 지 20여 년. 믿음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져 뿌리 내렸습니다. 싹이 자라고 줄기가 단단해져 잎과 꽃이 피어나기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을 키워주신 베델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시간까지 주님의 불드심 가운데 시시때때로 부어주신 은혜의 비가 넘쳐흐렀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을 찾아주신 박 목사님, 사모님, 홍 권사님은 초면임에도 따뜻한 사랑의 향기로 저희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고, 가정예배 중 기쁜 찬양과 목사님의 축복기도,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적 삶에 속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 임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계획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김은희 집사(은혜목장)

저희 가족이 2023년을 은혜롭게 시작하도록, 믿음 목장의 김 목사님과 황 권사님께서 대심방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세 아들이 함께 받는 첫 대심방이라 더욱 감사했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7절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목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시기에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 씨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한

다는 말씀에, 어떤 것은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을 하는데 우리 가족은, 아니 나는 과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인가에 의문이 생기고 찢림이 있었습니다.

베델교회에 출석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남편에게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안수집사 직분을 주시고, 설목자로 분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은혜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온전한 섬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께서서는 고민하고 애쓰는 마음이 더 값진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은 떨림으로 대심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지현 집사(민음목장)

베델선교

작은손들이 모여 확장되는 선교



오래전 선교를 가보기 전 저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선교에 대해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안과 주변에서도 선교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멀리 가야 하나요? 선교가느라 쓰여지는 경비를 선교사님께 직접 드리면 더 요긴하게 사용하실 텐데요?"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처음 선교하러 간 곳은 멕시코의 한 농촌마을이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는 일은 집 없는 농촌에서 일하시는 가족들을 위해 농촌 옆에 조그마한 집들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집이 없어 캠프에서 단체생활하던 가족들을 위해 그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방 하나와 부엌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1박 2일 일정으로 짧은 기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페인트칠하고 청소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하면서 '이 공간

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우리의 작은 손들이 모여져 일하는 것이 한 손만으로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한 울동과 찬양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놀던 아이들은 함께 모여 찬양을 하자 신나 하며 뛰어놀며 예수님을 배워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선교가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내가 베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우치고, 낮아짐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김일란 권사

QTin 간증: 권미경 집사

주님의 뜻

마 20:15-16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품꾼으로 일할 수 있고 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면 만족할 듯하였으나 다른 이와 비교로 바로 주인께 감사했던 마음이 불만으로 바뀌는 이 모습이 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제가 정하려 하고 안 해 주신다고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자꾸 잊고 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을 밀어내고 있었던 저에게 다소 늦은 나이지만 재작년에 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곧이어 좋은 양육 선생님을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지금 제자반을 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되기 위해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교육부-교사 기도회

We are the AMENgers!



예배를 모두 마친 주일 오후, 평소 한산하게 비어 있을 체육관에 반가운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한 주 동안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이 금식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마침내 주일에 다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CIM 한어 중고등부, BYM 중등부, BYM 고등부, 소망부까지 9개의 교육 부서와 지원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 팀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TA 들까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섬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교육부 박성권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사로 부름 받은 자로서 세 가지에 특히 힘써야 하는데, 첫째는 예배의 태도뿐 아니라 삶 전체가 본(exemplary)이 되어야 하며, 둘째는 기도회 힘쓰되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중보의 내용을 기록(journal)하고, 셋째는 진리를 전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아멘저스(AMENgers)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영아부의 아기들부터 곧 성인이 될 고등부의 학생들까지 나이도 광범위하고, 필요도 각기 다르며, 소통의 언어 역시 한글과 영어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를 진정히 크리스천으로, 참된 예배자로 키워내는데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로, 교육부 모든 구성원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다른 부서에서 분주했지만, 이번 기도회를 통해 모두가 교육부라는 한 몸속 속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 교육부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베델뉴스팀

은퇴장로 조찬모임

흐뭇한 마음으로 격려와 사랑을

팬데믹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은퇴장로 조찬모임이 부부 동반으로 2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헬스바 기도회 후에 있었습니다. 셀목자 정기모임과 겹쳐서 주제가 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정성이 듬뿍 담긴 조찬과 반가운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아까워 참석했습니다. 은퇴장로라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여 셀목자, 중보기도 등 여러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조사역을 담당하시는 한 전도사님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시작하여 몸과 마음을 풀고, 식사 전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의 은혜를 새삼 느끼게 하는 바이올린 선율이 이 집사님의 연주와 임 집사님의 피아노 앙상블로 실내를 울렸습니다. 이어서 조찬사역 팀장인 이 집사님의 재롱 섞인 팀원 소개, 코미디쇼를 겸한 퀴즈와 음식에 대한 설명 후 즐거운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성이 깃든 귀한 음식을 나누며 테이블마다 담소의 꽃을 피우는 동안 실행 위원회의 현역 장로님들이 웨이터로 선배 장로님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활약하던 주역들은 은퇴하고 은퇴한 장로님들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기도와 격려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한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상황과 그동안 있었던 Bethel Classical Academy, QTIN 사역의 현황, 교회 내 여러 설비 변경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진솔하

게 설명해 주심으로 교회를 아끼며 기도하는 장로, 권사님들의 궁금증을 덜어 드리는 시간이었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흐뭇해하며 밝은 베델교회의 장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기할 것은 워싱턴주 타코마 새생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인자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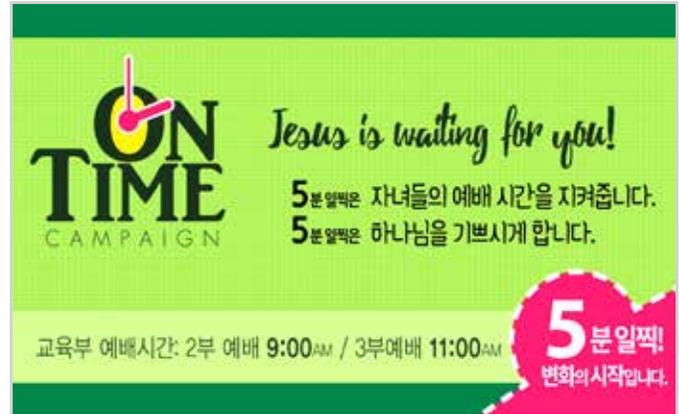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교회학교 "On Time Campaign"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입니다!" 3월 5일, 주일부터 한 달간, 교회학교에서는 'On Time Campaign'을 시행합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와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받으면 'On Time Campaign'에 참여하는 것이며, 스티커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상을 줍니다. 'On Time Campaign'은 예배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각인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예배시간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예배에 늦어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예배는 늦어도 된다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배운 자녀들은 커서도 우선순위를 지키며 '예배가 먼저'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전달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자녀들과 나누시고, 주일 아침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집을 나서는 습관이 자녀들에게 심어진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자녀 양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물려받는 베델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교육부 예배 시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 ▶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	3/19:	①부-김효선	②부-최주상	③부-한상섭	④부-이정수
	3/26:	①부-김동건	②부-홍대원	③부-조 룡	④부-이현재
	4/2:	①부-이종선	②부-이광수	③부-홍락기	④부-송미진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3,4월)	3/18: 최재호	3/25: 정낙성	4/1: 강정엽	4/9: 강재형
강단꽃(3,4월)	3/12: 최호경	3/19: 윤미경, 한동희	3/26: 장효준	4/2: 김숙연, 김영수, 양석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지연(소아과),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전미림(한외과), 간호사-김명숙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1-3부 예배는 지난 주에 이어 한국 예수향남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갑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김홍식 목사의 말씀 시리즈 '봄에 피는 꽃 TULIP'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는 현장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라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셀목자 정기모임** 돌아오는 토요일(18일)에는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서로 하나 되어 감당해 나가는 귀한 동역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장소:** 3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9시, 본당
*해시바 기도회 후 코트야드에서 간단한 간식이 준비됩니다.

◆ **베델 기도학교 3월 연합기도회** 베델 기도팀에서 주최하는 3월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베델 기도학교 훈련생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3월 23일(목) 오후 7시(간단한 스낵이 제공되니 10분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비전채플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수박헌금은 연두색 현금봉투로!** 다음 주일(19일)에는 1년에 한 번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2세 선교 지원을 위한 10불 수박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 **단기선교팀 모집**
- ① K국: 학생들에게 영어, 한국어, coding, 한국음식, 한국문화 사역
일정/문의: 4월 30일(주)-5월 9일(화),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② Q국: 난민을 섬기는 사역
일정/문의: 5월 21일(주)-31일(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③ 니카라과: 안경, 사진, 의료, 전도, 아이들 사역 등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5일(월)-10일(토), 정광묵 장로 (949)232-3963

◆ **58차 전도폭발 기도후원자의 밤** 전도폭발 기도후원자의 밤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3월 14일(화) 오후 7시, 유년부실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매주 주일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회학교 "On Time" 캠페인** 3월 한 달 동안 교회학교에서 지각없는 예배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주 동안 매주 예배에 정시(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도착한 학생들은 마지막 주에 시상이 있습니다.(7면 참고)

◆ **교회학교 QTin 3월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3월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예살 새가족 환영회** 예살의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오늘(12일)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살의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3월 12일(주일) 오후 5시, 유년부실
문의: 강수연 전도사 (650)704-4447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자(2세)와 봉사자(1세) 모집을 야외 카페 앞 부스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7월 10일(월)-13일(목)
문의: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주일 현금 안내** 매년 Tax 보고를 위해 현금 결산 보고서를 받으시려면, Check 현금은 메모란에 교적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Cash 현금은 봉투에 교적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교적번호를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실로 문의 주세요.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Text-only (949)229-1181

◆ **얼바인 지역 도로 통제 안내** 3월 26일(주일)에 마라톤이 얼바인 지역에서 있는 관계로 Irvine Valley College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405에서 오시는 분들은 Jeffrey/University를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Culve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전제이/김수경 성도 가정에 딸 지아(Jia)가 3월 10일(금)에 태어났습니다.

- ◆ **위로해 주세요**
- 故 채규원 목사님(채복화 사모의 남편)께서 지난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최영은 권사님(이상태 장로의 장모, 이원경 권사의 모친)께서 3월 4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병철 장로님(김성훈 집사의 부친, 배민정 집사의 시부)께서 3월 8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자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만주 집사, 최 신 권사, 허성숙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Forgiveness in Heaven

Matthew 18:21–35

- 1.** What would be the first feeling or response in your mind when you hear or think of the word 'forgiveness?' Explain the reason why.
- 2.** It is said that forgiveness is not about the problem between you and the other party, rather it's about the phenomenon that is naturally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RD and you. What do you think?
- 3.** Share if you had any experience of 'unforgettable grace that the LORD has provided' in relation to forgiving and asking for forgiveness.
- 4.** Share if you have changed your mindset about 'any person or situation' that you need to forgive or ask for forgiveness in your life as you think about forgiveness today.

Apply to Life

